

제2회 원장추천위원회 회의록

(2004년 8월 12일)

한국소비자보호원

제2회 원장추천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 일시

- 2004. 8. 12(목) 15:00~15:30

2. 회의 장소

- 본원 회의실(6층)

3. 회의 안건 (1건)

- 제1호 : 면접심사 후보자 선정(안)

4. 출석 위원 : 9명

- 이재림, 이승우, 김연화, 김종의, 윤정혜, 장지종, 전성자, 정경용, 홍은주

5. 결석 위원 : 없음

6. 회의 내용

- 위원장 개회 선언 : 지금부터 “한국소비자보호원 제2회 원장추천위원회”를 시작하겠습니다.

- 위원장 : 어제 늦게 서류심사 관련 서류를 받고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됨. 여러 번의 기관장 추천 경험으로 보아 서류심사 기간을 길게 갖다 보면 잡음 및 로비가 있을 수 있어 어제 늦게까지 수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임. 접수 결과를 합산하고 있는 동안, 지난 번 회의 이후,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람.
- 이승우 위원 : 지난번 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종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, 면접후보자를 4명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정부 쪽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, 즉 부적격자가 인선과정에 나타나 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어, 정부에 추천하는 최종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함.
- 장지종 위원 : 지난 번 회의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2배수 추천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음. 타기관에서는 통상 3배수를 추천하고 있으며 한전의 경우 5배수를 추천하였음. 검증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임.

(홍은주, 김연화 위원 등도 3배수에 동의하는 발언)

- 위 원 장 :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까요?
- 전성자 위원 : 서류심사를 통해 5명 정도를 추천하고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3명 추천하는 것이 어떨까요?
- 위 원 장 : 그것은 다음 단계의 문제이고, 우선 몇 명의 최종후보자로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. 위원 여러분들께서 최종후보자로 3명을 추천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보이는데...

(전성자, 장지종 위원 등 위원 전원 동의)

- 위 원 장 : 그럼 최종후보자를 3명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음. 그럼, 3명을 추천하기 위해 몇 명을 면접심사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. 배수로서 6명을 할 것인지 또는 4명 중에서 3명을 추천할 것인지, 5명에서 3명을 추천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.
- 전성자 위원 : 3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6명 중에서 3명을 선정하는 것이 빠르죠..
- 홍은주 위원 : 이미 서류를 검토하셔서 아시겠지만 6명까지 추천해야 할 일이 아닌 듯한데.. 5명 정도가 좋을 것 같음.

(홍은주 위원 제안에 위원 전원 동의)

- 위 원 장 : 여러 위원님께서 모두 5명을 면접심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시므로, 준비해 오신 평가표 상의 석차점수 순으로 5명을 면접심사 후보자로 선정하고,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월요일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음.
- 위 원 장 : 그럼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람.

(위원 대화)

- 윤정혜 위원 : 면접 시간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함.
- 위 원 장 : 5명의 후보자를 같은 시간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.
- 윤정혜 위원 : 후보자별로 각각 시간을 정해 10분 전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음.
- 위 원 장 : 후보자별로 시간을 각각 정하는 것이 좋음. 후보자별 면접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?
- 홍은주 위원 : 40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?

- 전성자 위원 및 장지종 위원 등 : 30분 정도면..
- 위 원 장 : 그럼 30분 정도로 정하겠음. 또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은 면접순서임. 면접순서가 빠를수록 질문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. 추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, 가나다순, 역순, 접수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. 접수순서는 자기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임.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?
- 전성자, 윤정혜, 홍은주 위원 : 접수 순서가 가장 좋음.
- 위 원 장 : 그럼 접수순서대로 면접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음.

(위원 전원 동의)

- 윤정혜 위원 : 다음 후보자 면접심사 시간을 정할 때 약간의 휴식 시간을 두어야 할 것임.
- 위 원 장 : 위원들도 면접 후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.
- 홍은주 위원 : 30분 면접 후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지요?
- 윤정혜 위원 : 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. 평가 결과를 기록하는 시간을 포함해서.

- 장지종 위원 :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임.
- 위 원 장 : 후보자별로 상호 대면하지 않도록 30분간 면접 및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음.
- 윤정혜 위원 : 면접시 질문방식은?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하나요?
- 위 원 장 : 자유롭게 함.
- 홍은주 위원 :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. 전문가분들이 하시게 되므로 저와 같은 비전문가는 관찰을 하고..
- 위 원 장 :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도록 함.
- 홍은주 위원 : 위원장님께서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됨.

(위원장 : 서류심사 결과 확인)

- 위 원 장 :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서류접수 순서대로 호명하겠음. 000 후보, 000 후보, 000 후보, 000 후보, 000 후보 등 5명이 면접심사 후보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획관리실장 : 제3회 원장추천위원회 일정 설명

- 후보자별 면접시간 및 회의 장소 등

- 기획관리실장 : 위원장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으로, 기자들로부터 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한 문의전화도 오고 있음. 아직까지는 일체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할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함.
- 전성자 위원 등 : 접수 인원만 공개하고...
- 기획관리실장 : 그러면 접수 인원만 공개하고 후보자 신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음.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, 교수 등이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을 공개하도록 하겠음.
- 홍은주 위원 :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응모를 하셨다고 하시면 될 것임.
- 기획관리실장 : 위원회에서 정하신 대로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하겠음. 면접 전에 면접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위원들께서 사전 미팅을 하시는 것은 어떠실지?

- 김연화 위원 : 2시부터 면접이므로 10분 정도 일찍 오면 될 듯함.
- 전성자 위원 : 30분 전에 와서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임.
- 홍은주 위원 : 어떤 점을 중요시 할 것인가에 대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.
- 위 원 장 : 그럼 30분 전에 오셔서 면접을 위한 사전 모임을 갖도록 하겠음.
- 위 원 장 폐회 선언 :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“한국소
비자보호원 제2회 원장추천위원회”를 마치도록 하겠
음. 끝.